

## 인도네시아의 여성할례 논란

2003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촌 지역과 번두리의 벽지에서 인도네시아어로 ‘테테산’(tetesan)이라고 불리는 여성할례가 널리 퍼져 있다. 그것은 특히 자와(Java) 섬이 심하다. 지난 수십 년 간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이 민중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이 관습을 없애기 위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법에 관한 저명한 전문가들은 그것을 “해로운” 것으로 규정한다.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도 2006년 보건부가 시도한 것처럼 ‘테테산’을 폐지시키기 위해 한 때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할례 그 자체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Quran)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 세계 무슬림들은 할례를 무슬림 남성의 의무로 생각한다. 남자의 경우 소년이 7~10살 사이에 가족의 축제로 실시된다. 여성할례 역시 꾸란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에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북아프리카의 베두인(Bedouin)들뿐만 아니라 남부 이집트, 소말리아, 수단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그룹들은 그것을 미혼 여성의 순결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지키려고 한다. 이처럼 여성할례는 의무사항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지식인인 수만토 알 쿠르투비(Sumanto Al Qurtuby)는 여성할례를 지지하는 자들이 주로 반둥(Bandung)과 아체(Aceh)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는 근본주의자 그룹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여성할례가 이슬람법에 의해 “도덕적으로” 권장되고 있으며,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하디스(hadith)에도 언급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디스의 경우 여섯 가지의 다른 본(本)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만 여성할례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Among **girls** aged  
**15-18** in  
**Indonesia**,  
**86-100%** have  
undergone some  
form of **FGM**.

\*According to a 2003 Population Council study  
surveying eight sites in six provinces

인도네시아 율라마(ulama 즉 이슬람 학자) 위원회(MUI)는 여성할례를 지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최대 이슬람 조직인 MUI의 위원장은 음핵을 제거 혹은 절단하는 여성할례에 관한 논의에서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그 사이에 인도네시아의 한 판사가 여성할례를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는 그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자 그것이 “농담”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많은 무슬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인도네시아 사법부의 윤리위원회로부터 기소되었다.

MUI는 인도네시아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슬림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파트와(fatwa) 즉 ‘권위적인 해석과 의견’을 제시하는 대표 기관이자 이슬람 신앙에 관한 정부의 자문기관이다. MUI의 대표인 키야이 하즈 아민 마루프(Kiai Hajj Amin Maruf)는 여성할례에 대해 그것은 “도덕적 이유에서 권고할 만한 관습”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여성할례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인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하면서 이 관습을 불법적이라거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선언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한다.

여성할례는 이처럼 정통주의 이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적 근거가 없는 문제 있는 관습이며, 인도네시아 여성단체들이 그것을 “가정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할례를 당하는 소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권침해의 문제이며, 또한 건강 및 심리의 문제도 안고 있다. 여성할례를 통해 여성 생식기가 절단되는 사람은 성적 쾌락이 상실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술이 종종 비위생적인 장소 및 시설에서 그리고 살균된 것이 아닌 장비로 행해지기 때문에 감염과 수술

후유증의 위험도 있다. 인권 활동가들과 시민사회의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여성할례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다.

한 세대 전 여성할례의 시술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 증언에 따르면, 할례 시술이 제대로 위생처리된 사적인 실내공간이 아니라 야외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때 소녀의 두 발은 땅바닥에 닿은 채 생식기가 면도날로 제거되었다. 소녀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동안 상처 부위에서 피가 흘러 나왔다. 시술이 끝난 후 소녀의 가족은 이웃들이 그 할례 의례에 참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잔치를 벌였다.

여성할례는 대개 음핵을 덮고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시술을 요구한다. MUI의 하즈 아민 마루프는 무슬림들에게 생식기를 실제로 절단하는 과도한 시술은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그는 MUI가 여성할례를 의무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 전통을 폐지하려는 것은 강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인다.

## 참고문헌

*AsiaNews*, 2012/12/7; *AsiaNews*, 2013/1/24

크리스티네 쉬르마허. 『이슬람과 사회』. 김대옥·전병희 역. 인천: 바울. 2010.